

## 海外情報

### ○ 미국의 Marvel사, DAP 생산 전면 중단

미국의 DAP 생산 메이커인 Marvel Corporation은 금년초 DAP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급과 시장경기의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간은 무기한이라고 한다.

Marvel사는 플로리다주 바이니포인트와 마벨의 인산비료 공장에서 장기 생산을 중단한 이후 작년에는 수급과 시황의 호전을 배경으로 생산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인산비료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데다 봄철 비료 판매가 부진하였고 재고 증대가 예상외로 악화됨과 동시에 시장경기도 하락세로 돌아서서 작년 10월 DAP의 생산을 25% 감축, 생산조정을 함으로써 바이니포인트의 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조정과 맞물려서 마벨에 있는 공장도 년초부터 조업을 중단하여 바이니포인트 와 마벨의 두 공장을 전면 중단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DAP 중심으로 바이니포인트 60만톤, 마벨 70만톤으로 합계 130만톤이다.

미국의 인산비료 메이커들은 IMC Global이 지난 가을 대형의 포스티나(도널드선빌) 공장에서 DAP와 MAP 생산량을 1/3 감축하고 니콜스와 다우트 두 공장의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등 대폭적인 생산조정 방침을 결정하였고, 또한 PCS와 Cargil도 감산 대책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Marvel이 무기한 전면 생산중단에 들어감으로써 조정은 한층 강화 되었다.

독과점체제의 구축으로 생산조정이 용이하게 되고 시장 경기의 회복세에 들어간 미국 인산비료 메이커는 이러한 구조가 작년 후반부터 무너지면서 이번의 Marvel의 생산중단 문제로 인하여 수급과 시장 경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월 20일 >

#### ○ 미국의 인산비료 수출조합, 저가 판매 불허 방침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인산비료 수출조합(휘스게임)은 금년초에 인산비료 수출에서 “싸게 팔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은 전에도 결정된 바 있었으나 넌초를 계기로 관련 사용자, 수출선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조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DAP 가격과 관련하여 관련메이커 등은 대폭적인 감산대책을 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Marvel도 공장의 전면적인 조업중단을 발표하는 등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짠값의 판매 불허 방침을 새로 결정한 것 같다. 최근의 DAP 수출가격은 메이커의 생산조정 강화, 춘비를 향한 하역작업의 활성화, 재고감소 등으로 조금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휴스게임도 이에 호응하여 가격인상의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월 20일 >

○ 중국, 화학비료 생산(1~11월) 2,952만톤

중국 관련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99년 1월~11월의 화학비료 생산은 2,952만6,600톤으로서 전년 대비 110.5%이며, 전년에 비해 10% 이상이 증가하였다. 11월 한달에는 250만 7,400톤으로 101.6%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의 품목별 내역은 분명치 않지만 주체는 요소 등으로 추측이 된다.

이 수치에서 보면 중국의 99년 1월~12월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3,000만톤을 돌파, 3,100만톤을 초과한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DAP나 가리 등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요소의 자급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월 20일 >

○ 황산암모늄 시황, 동남아 등의 수급 불균형으로 약보합세

최근의 동남아세아 황산암모늄은 약보합 추세로서 전에 비하여 몇 달러 가격 인하된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는 최근의 황산암모늄 수출가격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황산암모늄의 국제 수급은 카프로락탐의 생산 증가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서 이것이 수요를 앞질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의 정체는 가격면에서 요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황산암모늄 가격의 연화 요인이며 경제 원칙이기도 하다.

동남아 시장은 일본과 한국의 최대시장이며 금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제품이나 러시아 제품, 한국제품이 투입되어 가격면에서 볼 때 수급 불균형은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시황은 한 때 몇 달러 하락에서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설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본의 대 동남아시장 황산암모늄 수출가격은 요소 가격의 하락에 따라 대폭적으로 하락한 후 회복세로 돌아서서 비교적 안정기조에 놓여 있었다. 최근에는 그 국면이 아무래도 하강 기조이고 얼마쯤 지나서 그것이 브레이크에 걸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바이어측의 구매의욕에 달려있으므로 관련 수출업자 등의 수완이 요구된다.

메이커족에서는 엔고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줄어들므로 가격유지를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월 21일 >

#### ○ 호주의 Western Mining, DAP 생산 개시

호주의 메이커 Western Mining은 금년초부터 DAP의 본격적인 생산 조업에 들어 간 것 같다. 업계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국내 수요를 목표로하여 공급에 들어갔으나 잉여제품이 발생하면 수출도 할 것이라고 한다.

Western Mining의 DAP 생산능력은 80만~100만톤으로서 공장을 완공하여 작년 가을초부터 테스트를 실시 가동 준비를 갖추어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조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생산품은 우선 국내시장으로 내놓고 여유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장으로 수출도 할 방침이다. 동사의 DAP가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생산의 본격화로 차츰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이 DAP 수출은 Cargil이 담당하고 생산량의 절반은 동남아 등에 내보낼 계획이다. Cargil은 작년 12월 일본 시장 판매시에도 홍콩의 관계대표를 일본에 파견하여 관련업자들을 숙방하면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사용자 등이 과연 호주 DAP를 사용할지는 우선 제품이나 가격 조건을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월 21일 >

#### ○ 요소, 국제 가격시황 약간 상승 기조

전에 조금씩 상승 기조로 돌아섰던 요소의 국제시황은 여전히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되어 중동품은 FOB 90달러에서 90달러 전반으로, 흑해 선적분은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

업계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제품은 FOB 90달러 전반의 수준이라고 전한다.

요소의 국제가격은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98년 말에는 중동품은 FOB 70달러에서 70달러 전반까지, 흑해품은 FOB 60달러대 중간까지, 인도네시아 제품은 80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후 소폭의 상하변동을 되풀이 하였지만 가격의 오름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낮은 가격으로부터 중동품은 20달러 가량, 흑해산은 10여달러, 인도네시아품 또한 10여달러가 올랐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어 중동품이 FOB 100달러선을 돌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어 저가 수준을 탈출하게 될는지, 아니면 답보상태가 계속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요소 시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로 돌아서는 이유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인도네시아 품은 내수용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대외 공급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또 중동, 흑해품은 아시아와 북미 및 중남미에서 잘 나가고 있어서 수급 균형의 변화에서 오는 것 같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월 24일 >